

재외동포의



09

2016



특집 _ 재중동포 청소년 모국서 한민족 정체성 함양 171명 역사·문화 배우고 발전상 체험, '도전벨' 등극

화제 _ 박근혜 대통령 7주년 광복절 경축사서 북핵 개발 중단 거듭 촉구 "통일은 북한 간부·주민에 새 기회... 통일동참 바란다"



손기정 기증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서구 유물로는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



1



2



3

손기정(1912~2002) 선생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메달과 함께 투구를 부상으로 받게 되어 있었지만, 투구는 당시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독일 내 박물관에 50여 년간 보관되어 있었다.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그리스 유물을 주는 관행은 제2회 파리 올림픽(1900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기원전 490년 아테네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한 후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약 40km를 달려온 병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유물 수여는 고대 유물의 유출 금지령이 내려진 2차 세계대전 때까지 계속되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는 그리스의 '브라디니' 신문사가 청동 투구를 마라톤 우승자에게 줄 선물로 내놓았던 것인데, 당시 국제 올림픽위원회(IOC)는 '아마추어 선수에게는 메달 이외에 어떠한 선물도 공식적으로 수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손기정에게 이 투구를 수여하지 않았다. 손기정은 마라톤 우승자에게 메달 이외에 주는 부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귀국했다. 당시 일본은 손기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거나 IOC에 건의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 사실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975년 손기정 선생은 앨범을 정리하다가 자신이 받아야 할 부상 으로 그리스 청동 투구가 있었음을 알게 됐고 투구 행방을 수소문 한 끝에 베를린 샬로텐부르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반환 추진에 나섰다.

투구를 반환받기 위한 노력을 10여 년간 끈질기게 계속됐고 1986년 베를린올림픽 개최 50주년에 때맞춰 주인의 손에 돌아오는 결실을 보았다. 그리스 투구는 외국 유물이라는 하지만 2천 6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마라톤 우승자의 부상품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1987년 서구 유물로는 처음으로 보물(제904호)로 지정됐다. 손기정 선생은 "이 투구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라며 국가에 기증했다. **[참]**

- 1. 손기정 선생이 올림픽 마라톤 우승 기념으로 받은 청동 투구는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코린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23cm, 보물 904호.
- 2. 손기정 선생이 1986년 독일 정부로부터 투구를 돌려받은 후 감격해 하고 있다.
- 3.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의 금메달(뒷면).



표지 이야기

조선족 청소년 171명이 참가한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방문사업이 7월 27일부터 8박 9일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주요 유적지 및 명소들을 방문했다.

02	한국의 얼	손기정 기증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서구 유물로는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
04	특집	재중동포 청소년 모국서 한민족 정체성 함양 171명 역사·문화배우고 발전상 체험, '도전별' 등극
0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온라인 송부하면 빠르고 편해
08	화제	박근혜 대통령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서 북핵 개발 중단 거듭 촉구 "통일은 북한 간부·주민에 새 기회... 통일동참 바란다"
10	글로벌 코리아	한국어 현장지침서 펴낸 재미동포 구은희 씨 터키 명문대 수석졸업 영예 안은 권태영·권민아 남매 미국에서 40여년간 대한부인회 이끈 설자 워낙 씨
12	인터뷰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취임 50일 특별인터뷰 "평화통일에 동포 역할 중요, 모국과 차세대 간 연결고리 강화"
14	동포소식	미 LA서 첫 민관 합동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 본격 가동 외
17	동포 캘린더	아시아 14개 지역 한인 경제인들 모국 수출증진 논의 외
18	지구촌통신원	이집트서 한식 열풍 일으킨 한인 셰프 양중희 씨 '중동식 컵밥', 현지인 입맛 사로잡아
19	우리말 배워봅시다	
20	동포문학	공존 이은비 _ 태국 _ 2015 동포문학상 중등고부문 우수상
22	OKF 뉴스	"글로벌 코리아 키우자" 동포 대학생 210여 명 방한 외
24	고향의 맛·멋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한 강릉 초당두부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오묘한 맛에 푹 빠져들어
26	재단공지	

재중동포 청소년 모국서 한민족 정체성 함양 171명 역사·문화 배우고 발전상 체험, ‘도전벨’ 등극



조선족 청소년 171명이 참가한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방문사업'이 7월 27일부터 8박 9일간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열렸다.

조 선족 청소년 171명이 참가한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방문사업'이 7월 27일부터 8박 9일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재외동포재단은 "공동화의 우레가 있는 중국 동북3성 조선족사회 청소년 171명이 한국에 모여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한민족으로서의 뿌리의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참가 청소년들은 8박 9일간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주요 유적지 및 명소들을 방문했다. 또, 국내 청소년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대원외고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7월 31일에는 모국에서 다시 만난 부모님과 함께 KBS 1TV '도전! 골든벨' 특집촬영 일정을 소화하며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가족애를 느끼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8월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아이코리아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박준덕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비서장, 대학생 멘토단 등이 참석해 지난 9일간의

성공적인 방문 일정을 소화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 번 행사의 목적과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국서 자리잡은 선배와 토크콘서트

행사 기간 고국에서 자리 잡은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7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열린 '재중동포 선배와 함께하는 비전 토크 콘서트'에는 배우 한성대 교수, 문민 재한동포교사협회장, 김용선 한중창업경영협회 부회장이 출연해 한국 유학생들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해 분투했던 경험담을 전하면서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비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를 맡은 배우 교수는 "한중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조선족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며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글로벌화된 것이 조선

족”이라고 소개했다.

조선족의 이주사를 소개한 김용선 부회장은 “10년 전만 해도 조선족을 평가할 때 중국 동북 3성에서는 정치력이 강하고, 중국 내 상·공업 도시에서는 경제력이 월등하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학력이 강점이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 뒤쳐졌다고 보았다”며 “최근에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다방면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인구도 가장 많아져 재한조선족이 조선족 사회의 또 다른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민 회장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며 “한국어든 중국어든 평소에 잘 익혀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배들은 든든한 고국이 옆에 있다는 것이 조선족에게는 큰 힘이라는 생각으로 겸손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문화와 언어에 능통하다는 점이 더는 장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분발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부회장은 “중국에는 250개 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고 한국에 유학 온 중국 국적자가 5만 명에 이르다 보니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조선족 대신 이들을 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신 바짝 차리고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고국에서 취업하거나 유학할 때 조선족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을 때 조선족이라는 것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게 된다”며 안이한 생각을 버리라고 충고했다.

한국 생활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이들은 “시야가 넓어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조선족 공동체의 앞날을 고민하게 된 것이 큰 보람”이라며 “특히 중국에 있을 때보다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이 생기고 남북 긴장 관계 완화를 도울 수 있는



모국에서 활약하는 선배의 경험을 전하는 '재중동포 선배와 함께하는 비전 토크 콘서트'가 7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아이코리아 강당에서 열렸다.

게 조선족이라는 자부심도 생겼다”고 답했다.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문 회장은 “조선어는 조선족자치주 공식어지만 한국에서는 ‘연변사투리’가 된다. 평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해 관심을 두는 것은 물론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배우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 교수는 “조선족은 조선어, 북한 말, 한국어를 다 잘 아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중국어와 영어 등 언어 구사력을 넓히는 것은 글로벌 인재로 클 수 있는 밑바탕”이라고 어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복디자이너가 장래 꿈이라는 라오녕성 푸순시 조선족 제1중학교의 박로환(고1) 학생은 “선배들의 경험을 들어보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크 콘서트에 참가한 소감을 말했다.

지린성 창바이현 조선족중학교에 다니는 한경월(고1) 학생은 “친척이 한국이나 중국 내륙 도시로 많이 나가 있어서 나도 나중에 고향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뿌듯해했다.



참가자들은 행사기간 KBS 1TV '도전 골든벨' 프로에 출연해 열띤 경합을 벌여 115대 골든벨에 황미홍 학생이 등극했다.



서울 남산의 한옥마을을 방문한 참가자들이 한옥을 입어보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황미홍 학생 115대 KBS '도전 골든벨' 등극

참가자들은 한국 방문 행사 기간에 KBS 1TV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 출연해 열린 경합을 벌여 115대 골든벨에 황미홍 학생이 등극했다.

골든벨에는 29개 학교에서 선발된 100명이 출연했다. 이들은 한국과는 다른 중국의 학교 문화, 연애 문화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실력을 겨뤘다.

행사 중간에 참가자들의 장기자랑도 이어져 김태룡, 허건, 강성주 학생은 흥겹게 아리랑을 불렀고, 박로환 학생은 직접 만든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 민요를 불렀다. 이어 뜨거운 환화를 받으며 등장한 가수 백청강도 열창을 하며 응원했다.

황 학생은 골든벨을 위한 마지막 50번째 문제로 만주 용정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瑞甸書塾)을 맞춰 재외동포 최초로 골든벨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참]**

참가 후기

재중동포 청소년과 함께 하나 되어

엄금철 성균관대 박사과정

이번 행사에서 멘토단 단장으로 사랑스러운 재중동포 청소년들과 8박 9일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중동포 출신인 저는 재단 초청장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멘토 모집 공지를 보고 서슴없이 지원했고, 운 좋게 멘토로 선발되어 후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만나기 전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공항에서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설렘이었습니다. 후배들과 소통을 하면서 고민과 꿈을 함께 하면서 모국의 우수한 민족문화를 체험하고 더불어 유학생할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심어 주고 싶었

습니다.

후배들이 보여준 당당함과 청순함 그리고 '도전! 골든벨'을 올린 후배가 너무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주고 선배라고 불러줘서 너무 행복했고, 더욱이 모교와 고향의 소식을 듣게 돼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10여 년 전에 떠난 고향을 찾아보고 후배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의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 방문'을 기약합니다. 함께 하나 돼서 행복했습니다.

오설란 흑룡강성 오상시조선족고급중학교 2학년

지난 7월 말 저를 포함한 많은 재중동포 학생들은 재외동포재단의 초청 덕분에 한국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방문 사업을 통하여 얻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서로 땀 식혀 주고, 눈길을 마주칠 때마다 웃음을 짓고 장기자랑에서 혼신을 다해 응원해주어 너무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멀지 않은 훗날 든든한 어깨가 되어 기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너무도 행복합니다.

또 머릿속에 지식을 담아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재중동포 친구들은 모두 각지에서 뽑혀온 우수한 학생입니다. 자신의 학교에선 우수하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빠져

리게 와 닿았습니다. 한국 방문에서의 여러 활동들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선사했고 고마운 마음을 안고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한국의 맛과 멋을 엿볼 수 있어 신났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멋진 한국의 모습에, 또 고전미와 현대미가 고루 갖춰진 정취 넘치는 모습에 멍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한국방문 사업은 저의 마음가짐과 인간됨됨이의 양성에 너무도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방문 사업에 힘을 모아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아이코리아 모든 관계자분들과 사랑하는 멘토님들에게 너무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9박 10일 동안의 시간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전진동력이 되어 언제나 행복, 건강하시고 각자 영역에서 휘황한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온라인 송부하면 빠르고 편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신분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고 장소에 관해 특칙을 마련하고 있고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해서는 관련 특례법에 의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옛 본적)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해야 하나,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할 수도 있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 방식에 의해 혼인, 인지, 입양 등을 하고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혼인증서, 입양증서 등)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 거주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한다.

작년 7월 1일자로 법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편리하게 됐다. 종전에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재외공관에 할 경우 이를 접수한 재외공관이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해당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처리기간이 3~4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된다. 전자적 송부는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신고를 하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서류에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거소 사실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방

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재외국민은 체류국가에서 체류국의 방식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재판상 이혼 제외) 등을 한 경우에 그 증서를 갖고 국내에 입국했을 때 재외국민을 소명하지 않고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이라면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적변동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한다고 해서 모국과의 관계나 혈연관계마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국적 상실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일단은 제적 처리(제적등본은 존재)되지만 그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됐다고 해서 가족관계,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나중에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다시 우리 국민이 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다시 만들 수가 있다. 오히려 국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때문에 국적회복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국적상실 및 이에 따르는 신고 절차를 일부러 기피할 이유는 없다. **▶**

Q&A

▶ 전자적 송부제도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자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적 송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전자적 송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과 함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전담기구이다.

박근혜 대통령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서 북핵 개발 중단 거듭 촉구 “통일은 북한 간부·주민에 새 기회… 통일동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친 뒤 여야 대표 앞을 지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최고위층이 아닌 간부와 주민들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통일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북한 최고위층과 주민에 대해 차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향후 대북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주민에게 통일이 희망이 될 수 있는 만큼 변화에 동참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오늘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핵 개발 및 도발위협 중단, 북한 주민 인권보호, 시대착오적 통일전선 시도 중단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대남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더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사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란다”며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국이 운명결정” 비관적 사고 떨쳐내야

박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에 대해선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작금의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이



광복절을 맞아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광복절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절실하다”며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을 놓고 국가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일관계에 대해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라고 말했다.

이울러 박 대통령은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며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폐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다”며 “자기비하와 비판,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다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



뉴욕시 의회가 8월 15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시청 체임버스 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광복 71주년 기념 리셉션’, 뉴욕시청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2009년 공식 기념식 개최 이후 두 번째이다.

동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대통령과 5부 요인을 비롯한 국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경축행사에서는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상징인 로봇 ‘휴보’와 가수 알리, 합창단과 관악예술단 등 총 100여명이 출연해 뮤지컬과 대합창 등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같은 시각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식과 타종식 등이 열려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

한국어 현장지침서 펴낸 재미동포 구은희 씨

실리콘밸리서 25년간 한국어 가르친 경험 답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5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쳐 온 구은희(49) 씨가 한국어 교사들에게 강단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전하고, 지침을 줄 만한 책 '나는 한국어 교사입니다' (도서출판 참, 224쪽)를 최근 출간했다. '미국에서 펼쳐지는 Dr.구의 한국어 교실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저자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좌충우돌 학생들과 겪은 경험을 통해 세계의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이야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한글학교 교사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인 한국어교육재단의 이사장인 그는 "한국어와 한글은 이제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를 향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 많은 한국어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책은 새롭게 강단에 설 선생님들에게 살아 있는 현장 경험과 지침을 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음악과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류를 좇는 이들은 한국 문화를 즐기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미국 속 한류 이야기', '실리콘밸리 한국어 교실 이야기', '한국어, 그 이상의 한국어', '한국어 홍보대사' 등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 하거나 아들 잃은 슬픔을 드라마로 달래는

미국인 등을 소개한다. 2부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3부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4부는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저자는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 지금까지 그 결과를 '세종대왕 전 상서', '한국어 사세요', '실리콘밸리 한국어선생님', '한글 포닉스' 등의 저서에 담았다. 그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직지)을 미국인들에게 알리는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한국어로만 노래하는 외국인 중창단을 창설해 미국과 한국에서 공연도 한다. 1991년 미국으로 건너가 휴스턴주립대에서 영어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어드روی트 칼리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터키 명문대 수석졸업 영예 안은 권태영 · 권민아 남매

“한류 덕에 잘 적응... 한국어강좌 개설에 보탬 돼 기뻐”

한국 유학생이 몇 안 되는 터키 명문 사학에서 한국인 남매가 나라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화제다. 한국 유학생 권태영(26·사진 왼쪽)·권민아(25) 남매는 터키 수도 앙카라에 있는 빌켄트종합대학 건축·환경디자인과와 그래픽디자인과를 각각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매는 지난 6월 11일 열린 졸업식에서 학과 졸업생을 대표해 대학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졸업장과 수석 상패를 받았다. 재학생이 1만3천 명에 이르는 빌켄트대학은 터키에서 최고 사립대학으로 꼽힌다. 현직 터키 외무장관과 개발

부장관(전 총리), 국가정보원장 등 유력 인사를 배출했다. 태영 씨는 2011년 한국에서 재수를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하던 중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터키로 유학을 결심했다. 터키와 교류가 많은 유럽이나 인근 중동에서도 기회를 얻기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다. 동생 민아 씨까지 설득해 빌켄트대학에 이듬해 함께 입학했다. 당시 빌켄트에는 태영씨 남매를 제외한 한국 유학생이 2명뿐이었다. 태영 씨는 “터키인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이긴 해도 한국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는데, 마



침 이곳에 '한류'가 확산하면서 우리 남매가 낯선 곳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남매는 재학 중 과 수석을 거의 놓치지 않아 동기들로부터 '너희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지독하게 열심히 하고,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태영 씨는 다음 학기부터 이탈리아 밀라노공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민아 씨는 독일에서 취업할 계획이다. 빌켄트대학에는 올해 봄학기부터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다. 터키에서 활동하는 양남식 목사와 한국문화원이 빌켄트대학을 꾸준히 접촉했고, 태영씨 남매 등 한국 유학생들이 힘을 보탠 결과 터키 최고 사학에 한국어 강좌가 생겼다.

지금까지 터키 대학 가운데 앙카라대학과 에르지예스대학에 한국어문학과가 있고, 빌켄트대 등 3곳에 강좌가 개설됐다. 중국



어와 일본어 수업은 있는데 한국어 코스가 없어 안타까웠다는 태영 씨는 "학교 측에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하고, 서명 운동도 벌였다"면서 "졸업 전에 한국어 수업이 시작돼 보람을 느낀다"고 뿌듯해했다.

미국에서 40여년간 대한부인회 이끈 설자 워닉 씨

“저출산·초고령사회 한국, 싫든 좋든 이민자 받아들여야”

미국 워싱턴주에서 40여년간 대한부인회를 이끌어온 설자 워닉(74) 씨가 8월 24~26일 제주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에 발제자로 초청돼 모국을 찾았다. 미국에서 대한부인회가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워닉 씨의 일생을 바친 헌신 덕분이었다. 워닉 씨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1976년이다. 앞서 그는 한국에 미군 장교로 왔다가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무역회사 직원으로 온 남편과 사랑에 빠져 1968년 결혼을 했다. 미국의 명문 유대인 집안 출신인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이민을 택했지만, 그는 처음 밟은 미국 땅에서 적지않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그는 우선 미국 사회에 대해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인근 초등학교에서 무급으로 보조교사 일을 시작했고, 이후 시애틀에 있는 대학교에서 정식 코스를 밟아 20개월 만에 미국 교사 자격증을 따다. 정식 교사가 된 그는 다시 학교 바깥으로 눈을 돌렸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여성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마침 내가 80년대 초에 타코마 카운티 복지국에 이사오 들어가게 돼 6년간 일했습니다. 거기서 미국에 다양한 복지금, 보조금(grant)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워닉 씨는 카운티 당국에

노인 복지 보조금을 신청해 3만5천 달러를 처음으로 받았다. 그 돈으로 대한부인회에서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시작했고, 가난한 노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추가로 15만 달러를 받아내 간병 서비스까지 확대했다. 노인 간병 서비스는 대한부인회의 최대 복지사업이 됐다. 현재 대한부인회가 12곳에서 운영하는 노인 돌봄 센터는 300여명의 직원과 1천여명의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소수 민족으로서 한국인의 입지를 넓히고 다문화 가치를 실현하는데 몸 바쳐온 그는 “한국이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나라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좋든 싫든 이민자를 받아들여야죠. 지금부터 다문화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그들을 순조롭게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취임 50일 특별인터뷰

“평화통일에 동포 역할 중요, 모국과 차세대 간 연결고리 강화”



KBS 1TV '도전 골든벨'에 출연한 조선족 청소년과 기념 촬영하는 주철기 이사장.

주철기(7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민족공동체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해외에서 강력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가진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8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재외동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거주지에서 모범 시민으로 성장한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고 갈 차세대와 모국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주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Q 임기 동안 어떻게 재단을 이끌 계획인가?

재외동포재단은 720만 명에 이르는 동포사회를 잘 받들고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동포사회가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체감과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 나아가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등 동북아 공동번영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각하고 인식 확산에 힘쓰겠다.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동포사회 역량이 커졌다. 거주국에서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리더가 늘어나는 등 인적 네트워크가 커졌다. 신장한

동포사회의 역량을 모국과 잘 연결하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전에는 동포사회를 지원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모국과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Q 동북아 평화 정착에 재외동포가 기여하기 위해 재단이 해야 할 일은?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의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해당 국가에는 모두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거주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영향력도 있다. 그렇기에 동포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민 1세대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발 벗고 나설 정도로 모국에 대한 애정이 깊다. 반면에 동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는 점차 현지화하고 있는 데다 모국과의 연결 고리도 약하다.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우선 ‘세계한인차세대대회’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등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 정책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동포사회 지식층이나 리더그룹 등이 참여하는 포럼도 추진할 계획이다.

Q 재외동포청소년 초청 연수 참가자들이 ‘KBS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렸는데 동포사회 반응은?

골든벨에 참가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청소년 3천여 명이 몰렸고 이 가운데 가려 뽑은 학생들이 도전해 골든벨을 울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조선족 사회가 떠들썩거릴 정도로 반기고 있으며 고무됐다. 조선족은 한국과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이중 정체성을 가진 인재임에도 낮게 보는 인식이 있었는데 골든벨을 통해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작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

Q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을 떠난 사람들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동포사회가 거주국에서 인정하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은 것 모두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은 먹고살기에 바빠서 재외동포를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다. 이제 고국도 동포사회도 조금 여유가 생겨 서로 챙기게 됐다. 동포사회는 거주국에 한국문화를 전하는 등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고 한상 기업을 통해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늘려가고 있다. 재단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존재감을 계속 부각해 나갈 계획이다.

Q 올해 예산이 551억6천만 원이다.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의 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의 지원 덕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매년 해외의 유대인 차세대를 5만 명 초청한다. 모국연수를 통해 정체성도 함양하고 유대감도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단은 연간 1천여 명밖에 초청을 못한다. 1천900여 개에 이르는 해외 한글학교에 재단이 지원하는 운영비가 연간 평균 4천500~5천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단 사업은 소모성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다.

Q 취임 직후부터 '재외동포 지원센터' 건립을 강조했는데 이유는?

이민한 지 오래된 동포의 경우 고국 방문 시 호텔 외에는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숙박시설과 강연장 등을 갖춰서 차세대와 한글학교 교사 등의 연수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센터가 생기면 병무·세무·출입국 관리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Q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서귀포시의 제2청사로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내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포사회에서 제주도 방문의 번거로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사무소를 조화롭게 운영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Q 오는 9월 27~29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의 특징은?

'세계한상대회'는 1천여 명의 동포 경제인과 2천여 명의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자리다. 올해는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한상을 통한 청년 해외 취업 등 '인재수출'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공한 한상 1세대는 대부분 패기 하나만으로 거주국에서 성공했다. 이들의 개척정신을 본받아 더 많은 분야에서 해외 진출이 일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

외무고시 6회로 1972년 외교부에 입부한 주 이사장은 중미과장, 주 프랑스 대사, 주 유네스코 대사, 본부대사 등을 역임했고 퇴임 후에는 한·불 21세기 포럼회장, 한중 국제 교류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3~2015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안보실 제2차장(2014~2015년)을 겸임했다.

미 LA서 첫 민관 합동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 본격 가동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서 처음으로 민관 합동의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이기철 주 LA 총영사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 등은 8월 17일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한국 알리기 LA 프로젝트 추진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한국 알리기 LA 프로젝트 추진단’에는 LA 총영사관과 반크를 비롯해 LA 한국문화원, LA 한국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LA 사무소,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미주 초중고 한국어 교사 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이 총영사는 서명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알리기 LA 프로젝트의 주 대상은 현지 미국인과 차세대 교포 2·3세대”



이기철 주 LA 총영사(가운데)는 8월 17일 총영사관에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왼쪽), 신영숙 미주 한국학교연합회 회장과 ‘한국 알리기 LA 프로젝트 추진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육성지원, 해외 한국홍보대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알리기 활동을 해오면서 축적한 반크의 소프트웨어를 한글학교와 세종학당에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한국 알리기 프로그램 모바일 웹과 동영상 제작 중”이라고 말했다.

이라며 “이들에게 한국의 제대로 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전파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의 향후 활동 방향은 ‘미국 초중고 교과서와 교사 보조교재에 한국 발전상 서술’, ‘교포 2·3세에 모국 역사·문화를 교육하는 한글학교 확대’, ‘세종학당과 대학 한국학 연구소 등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학 증진’ 등이다. 추진단은 또 차세대 한국 전문가

평균 68세 할머니들로 구성된 재미동포 합창단 ‘눈길’

평균 연령 68세, 29명의 할머니로 구성된 한인합창단이 한국 내 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 온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합창단’ (단장 홍경자·이하 동문합창단)으로,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젊은이 못지않은 목소리와 기량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무대는 동문합창단을 비롯해 국립합창단 등 국내외 14개 합창단 550여 명이 참석하는 ‘2016 한민족합창축제’였다. 동문합창단은 8월 12~15일 경기도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서울 예술의전당 등의 무대에서 다른 합창단과 함께 ‘통일 판타지’ 공연을 펼쳤다. 이들은 8월 16일 출국을 앞두고 이구동성으로 “국립합창단과 함께 통일을 노래한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며 즐거워했다. 국립합창단은 한민족합창축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합창단’ (단장 홍경자)이, 8월 15일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펼쳐진 ‘통일 판타지’ 공연에서 젊은이 못지않은 목소리와 기량으로 주목을 받았다.

제 협연을 위해 해외 4개 한인합창단을 선정했는데, 미주지역에서는 동문합창단을 초청했다.

홍경자(75) 단장은 “두 달 전에 ‘통일판타지’ 연주 악보를 받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곡을 외웠다”며 “단원들도 기왕에 무대에 오르는 것이니 구색 맞추기용이 아니라 제 몫을 다하는 합창단이라는 걸 보여주자는 각오로 노래했다”고 소개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합창 연

습을 해온 이들은 정기연주회 이외에도 한인 관련 행사와 주류사회 각종 자선행사에 단골로 참석해 노래를 불렀다. 외국 생활을 적게는 20여 년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이들에게 고국은 어떤 존재인지를 묻자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뛰고 분단된 현실에 늘 가슴이 저린 자랑스러운 친정집”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드니 코리아가든건립추진위, 한국 정부·기업에 지원 호소

“호주 시드니에 세워질 ‘한국문화예술의전당’과 ‘한국정원’은 한인 후손에게는 정체성 확립과 함께 자긍심을 심어주고, 현지인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메카가 될 것입니다.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3~2015년 시드니 한인회장을 지낸 송석준(62) 시드니 코리아가든건립추진위원장이 한국정원 건립의 당위성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을 찾아 협조를 당부하려고 방한한 송 위원장은 8월 24일 “건립 예정지(3만3천㎡)의 주인인 연방정부가 100만 호주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 한국정원 건립에 전환점이 됐다”며 “이제부터는 한국 정부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진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원 건립 예정지는 시드니 올림픽 파크와 인접해 있고, 한인 밀집지역인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 리드콕 등 3곳의 한중간이다. 한국정원 건립에는 총 5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먼저 ‘한국문화예술의전당’을 건립하

송석준 시드니 코리아가든건립추진위원장은 “호주 시드니에 세워질 ‘한국문화예술의전당’과 ‘한국정원’이 한인 후손에게 정체성 확립과 함께 자긍심을 심어주고 현지인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메카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고, 나중에 ‘한국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한국문화예술의전당 건립비로 200억 원을 책정했다. 6층 규모의 본관과 3층 규모 부속건물로 구성된다. 본관에는 소매점, 식당, 카페, 600~8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한국문화원, 한인명예의전당, 한국 전통문화 전시장, 가평전투 기념관, 한인회와 각종 한인 단체 사무실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건립비를 모금으로 충당하고,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의 지원도 받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동포들, 고국 병원 골라서 간다... ‘의료 한류’ 본격 발진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 건강 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 입맛대로 병원을 고를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생겼다. 미국 서부지역 최대 한인 보험회사 중 하나인 천하보험은 8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한국 병원 홍보와 온라인 예약을 겸한 사이트인 ‘메디2코리아닷컴’(Medi2Korea.com) 출범식을 열었다. 천하보험의 자회사인 메디2코리아닷컴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과 한인 동포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간 동포들은 검진을 위해 일일이 한국 병원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검진 목록과 비용을 병원별로 한눈에 비교해 원하는 병원을 선택·예약할 수 있다. 예약 후 검진을 받는 기간도 2~3주로 짧은 편이다. 또 엄청난 검진비가 들어가는 미국과 달리 동포



미국 서부지역 최대 한인 보험회사 중 하나인 천하보험은 8월 2일 한국 병원 홍보와 온라인 예약을 겸한 사이트인 ‘메디2코리아닷컴’을 출범시켰다.

들은 내국인 수가 수준에서 저렴하게 특화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메디2코리아닷컴은 설명했다. 건국대학교 병원, 분당 서울대 병원, 부산대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등 서울, 부산, 경기, 충북, 대구 등 전국 5개 지역의 종합병원 14곳과 자생한방병원, 누네빛안과, 나누리병원, 미즈메디병원 전문병원 4곳 등 총 18곳의 병원이 메디2코리아닷컴에 참여했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는 “선진국 의료 수준이면서도 훨씬 저렴한 우리나라 병원을 미주에 사는 동포들이 직접 예약해 최고의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2년간의 준비 끝에 메디2코리아닷컴을 발족했다”면서 “검진 내용과 검진 비용 등을 쉽게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주서 열려... 30개국 200여 명 참가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행사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 에너지, 일·가정 양립! KOWIN이 동참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대회는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을 비롯해 특별

세션, 전시회, 국내외 여성 간 교류의 시간, 지역 문화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 '창조경제와 글로벌 여성 인력 파트너십 강화', '시대의 금기를 깬 조선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 '행복 에너지의 글로벌 비전 ECO·Economy·Ecology'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8월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회식

곳곳을 보여주는 사진전 등이 부대행사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서로 성공스토리를 공유하며 교류와 연대를 강화했다. 16번째 열린 KOWIN 대회에는 지금까지 55개국 한인 여성 7천여 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단순한 친교를 넘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여성들이 전 세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장(場)으로 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각지에서 성공한 한인 여성들이 제주지역의 여대생, 다문화 관련 종사자, 아동상담센터 관계자 등과 만나 대화하고, 세계 21개 지역의 담당관들과 제주 여성 리더와 만나는 간담회도 사전 행사로 마련됐다. 여성 CEO들의 우수한 저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수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기업 상품전과 제주도 특산품 전, 제주

재미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에게 대통령표창 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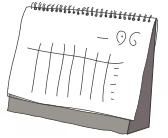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북미대륙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재미교포 김순권(1886~1941) 선생에게 광복 71주년을 맞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됐다. 김순권 선생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설적 '전쟁영웅'으로 알려진 김영옥(1919~2005) 미 육군대령과 세계적인 예술의상 디자이너 윌라 김(99)의 부친이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 경신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03년 미국으로 망명, 대한인동지회와 대한인국민회 회원으로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활약했다. 대한인동지회는 이승만 대통령, 대한인국민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각각 미국에 세운 독립운동단체다. 미국에서 발행된 신한민보 1923년 6월 14일자는 김순권 선생이 당시 캘리포니아 남부 한인 사회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김영옥을 포함한 그의 자녀들은 매우 어렵게 살았다고 전한다. 번 돈 대부분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내놨



광복 71주년을 맞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된 재미독립운동가 김순권(1886~1941) 선생. 제2차 대전 전쟁영웅 김영옥(1919~2005) 미 육군대령의 부친이다.

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한인동지회 대표를 맡을 정도로 이승만의 측근이었지만, 도산 안창호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도산이 독립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했던 북미실업주식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청산절차를 맡아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으며, 1932년 도산이 일본경찰에 체포됐을 때는 이승만이 도산의 부인에게 보낼 전보를 그에게 보내 전달해주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남2녀 가운데 장남 김영옥은 미국 육군장교로 제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 불패신화를 쓴 주인공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최고무공훈장을 받았다. 장녀 윌라 김은 토니상 2회, 에미상 2회 수상에 빛나는 예술의상 디자이너로 '세계 무대예술가 명예의 전당'에 들었고 한국 보관문화훈장도 받았다. **[참]**



아시아 14개 지역 한인 경제인들 모국 수출증진 논의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박기출, 이하 월드옥타)는 8월 11일 태국 방콕의 그랜드센터포인트 호텔에서 '제2기 아세안 통합 대표자대회' 개막식을 열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대회에는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지역 14개 월드옥타 지회장과 임원 6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전국 14개 테크노파크와 협력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친구 맺기' 사업과 차세대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성료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는 8월 10~13일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2016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한미 과학기술인 1천여 명이 참가해 '과학기술을 통해 풍요로워지는 삶'을 주제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과학계의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물리·화학·소재공학·바이오 등 12개 분야로 나눠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에너지·기후변화·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류의 미래를 조망했다.



"하나뿐인 사할린 달력 선물하세요"... 온라인 모금운동

해외동포들을 돕는 시민단체인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사할린 한인인 위해 음력과 한국 명절 등이 표기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17'을 제작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달력에는 기일, 손 없는 날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음력과 한국 명절, 국경일을 표기하고, 우리말을 거의 못하는 3~4세를 위해 러시아어로 설명을 단다. 후원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26133>)나 KIN의 계좌(우리는행 1006-301-227783)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민사박물관 '또 다른 이민, 해외 입양' 특별전 개막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관장 신은미)이 개관 8주년 기념으로 '또 다른 이민, 해외 입양' 특별전을 8월 23일 개막했다. 박물관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본격화된 해외 입양을 조명해 한인족 이민 역사에 포함하자는 취지에서 특별전을 마련했다. 11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해외 입양의 역사, 해외 입양에 앞장섰던 인천의 입양기관, 입양인의 현지 적응, 모국을 찾는 입양인 등 4개로 나뉜다.



홍명기 회장 미국 거주 탈북 가정에 5만 달러 기부

홍명기 듀라코트 그룹 회장은 8월 3일 미국 부에나팍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탈북민 자녀돕기 장학금수여식 및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초청 대북정책강연회에서 5만 달러를 기부하며 탈북민 자녀들을 격려했다. 총 50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홍 회장은 지난해 세계한상대회에서도 탈북청소년 장학사업을 위해 10만 달러를 재외동포재단에 기탁함으로써 2016년 4월 27일 창립된 사단법인 '글로벌 한상드림'의 씨앗을 제곱한 바 있다.



홍콩 '페스티벌 코리아' 10월 초 개막... "한국문화 진수 알려요"

홍콩에 한국문화를 두루 소개하는 '한국 10월 문화제' (Festive Korea) 행사가 10월 5일 개막, 11월 27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페스티벌 코리아는 10월 5일 저녁 홍콩이공대 자키클럽 대강당에서 비언어 공연 '점프'를 시작으로 공연과 전시 등 3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국총영사관은 페스티벌 코리아의 인지도 개선을 위해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한국방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홍콩의 명물인 노면 전차 '트램' 외벽에 광고를 처음으로 게재한다.



이집트서 한식 열풍 일으킨 한인 셰프 양중희 씨 ‘중동식 컵밥’, 현지인 입맛 사로잡아

한상용 | 연합뉴스 카이로 특파원



1



2



3

1. 이집트 수도 카이로 도심 타흐리르 광장 근처에서 컵밥 전문점 '코리아포차'를 운영하는 양중희 씨.
2. 지난 7월 3일 '코리아포차' 앞 모습. 컵밥을 먹는 손님들로 붐빈다.
3. 자신의 가게 앞에서 포즈를 취한 양중희 셰프와 창업 동료인 최재훈 씨(오른쪽).

중동의 인구 대국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컵밥 하나로 한식 열풍을 일으킨 한국인 요리사가 화제다. 주인공은 이집트에서 2012년부터 4년 넘게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사로 활동해 온 양중희(40) 셰프.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저 전속 요리사 3년 경력과 한국문화원 요리 강사 1년 근무 경험을 토대로 카이로 도심 타흐리르 광장 인근 '그릭(Greek) 캠퍼스'에서 '코리아포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포장마차는 이집트인과 유럽 출신 외국인들이 주로 근무하는 이 캠퍼스 일대에서는 이제 명물이 됐다. 한류 팬들에게는 일종의 '성지'로 인식될 정도로 유명 음식점으로 떠올랐다. 카이로 뿐만 아니라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수에즈 등에서 손님이 찾고 있으며 라마단 이전엔 하루 평균 60~80명 가량이 코리아포차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 6개월의 준비 기간과 3개월간의 메뉴 개발을 통해 얻은 결실이다. 양 셰프는 이집트인 입맛에 맞게 불고기와 채소, 치킨, 해물, 참치, 카레, 짜장 등 7종류의 컵밥을 개발했다. 가격은 현지 사정을 고려해 모두 25 이집트 파운드(약 3천200원)로 같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불고기를 얹은 컵밥으로 전체 판매의 약 70%를 차지한다. 매콤달콤한 떡볶이와 이집트 가게에서 파는

면을 이용한 한국식 라면과 김밥은 별미 음식으로 인기가 높다. 이들 메뉴는 가격이 20~25 이집트 파운드(약 2천600원~3천200원) 수준으로 손님들의 요청으로 직접 개발했다. 이슬람식 할랄 음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컵밥 소스와 라면 스프는 오랜 연구 끝에 특별히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이 음식들이 현지인 입맛을 사로잡고 '한국산 별미'라는 소문이 서서히 퍼지면서 양 셰프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갔다.

게다가 2주일에 한 번꼴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동네 청소부, 정원사, 수위 아저씨 등에게는 무료로 컵밥을 나눠주면서 '천사 셰프'란 별명까지 얻었다. 그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이집트인 친구는 4천500명에 달한다. '코리아포차'를 4개월간 운영하면서 팔로어가 1천500명 늘어났다. 한국문화원을 비롯해 이집트에서 한식 요리법을 가르친 제자만 해도 200여명에 이른다. 유명세를 타자 이집트 방송사가 올해 2차레나 양 셰프를 초대해 요리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양 셰프는 "이집트에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코리아포차를 차리게 됐는데 호응도 좋아 기쁘고 보람도 느낀다"면서 "코리아포차가 잘 정착하면 2~3호점을 내는 것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바른 말 고운 말

~아/어지다, ~아/어하다 '이루어진다' 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루어' 와 '진다' 를 띄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붙여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지다' 라는 것은 '이루어지다, 짚어지다' 와 같이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수동이나 자동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또 '길어지다, 짧아지다' 와 같이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동사로 바뀌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지다' 란 말은 하나의 어미이고, 앞말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붙여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다, 아프다, 행복하다' 와 같은 형용사를 '기뻐하다, 아파하다, 행복해하다' 와 같은 동사로 바꾸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형용사 어간 뒤에 '~어하다' 를 붙일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기뻐' 와 '하다' 를 띄어쓰지 않고 하나의 단어처럼 붙여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노름/놀음 '있다' 라는 말을 명사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 오류가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슴' 또는 '있씀' 으로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잘못된 표기입니다. 우리말에서 용언을 명사로 만드는 방법 중에 많이 쓰이는 것이 용언의 어간에 '~ㅁ' 이나 '~음' 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다, 꾸다, 추다' 와 같이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ㅁ' 을 붙여서 '그림, 꿈, 춤' 과 같이 만들고, '얼다, 웃다, 죽다' 처럼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음' 을 붙여서 각각 '얼음, 웃음, 죽음' 이 됩니다. 그러므로 '있다' 의 경우에는 '잇' 다음에 '~음' 을 붙여서 '있음' 이 됩니다. 그러나 발음은 물론 '이씀' 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의 일종인 '노름' 의 경우는 어떨까요? 맞춤법에는 '~음' 과 결합해서 명사가 된 것이라고 해도 어간의 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름' 의 경우도 원래는 '놀다' 라는 동사에서 온 것이지만 원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 '노름' 이라고 표기하고 그대로 발음합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0
31					32		

▶ **오른쪽 방향 열쇠**

- 우리나라의 독립 운동가(1879~1910). 1909년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발달이 앞선 나라
-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상
-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등을 이용해 불가사의한 일을 해 보이는 술법, 또는 그런 구경거리
- 자동차 도로에 주행 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그어 놓은 선
-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
- 나무로 만든 짝의 말을 묶은 글자와 푸른 글자의 두

- 종류로 나누어 판 위에 벌여 놓고 공격과 수비를 교대로 하여 승부를 가리는 놀이
- 담배, 돈 등을 싸서 가지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 가축, 종이, 형검 등으로 만든다
 - 한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짧고 작은 총. 군용 또는 호신용으로 널리 쓴다
 - 잘 때 몸을 덮기 위해 만든 침구의 하나. 숨을 넣기도 한다
 - 척추동물의 신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줌을 저장했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요도를 통해 배출시키는 주머니 모양의 배설 기관
 -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
 - 대학이나 학원을 제외한 각종 학교의 으뜸 지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 산 위에 쌓은 성
 - 이빨에 독이 있어 독액을 분비하는 뱀
 - '병(病)' 의 높임말
 - 임금이나 국가 원수 등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키는 부대
 -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감

▶ **아래쪽 방향 열쇠**

- 낮 열두 시, 곧 태양이 표준 자오선을 지나는 순간을 이른다.
-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해 조금 낡은 자동차
- 술청 앞에 선 채로 간단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
- 음력 8월 15일 추석을 달리 이르는 말
- 배의 항해와 배 안의 모든 사무를 책임지고 선원들을

-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
- 상(喪)을 당한 곳에 가서 조문(弔問)함
 - 고양잇과의 포유동물. 몸의 길이는 2m 정도이며, 등은 누런 갈색이고 검은 가로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꼬리는 길고 검은 줄무늬가 있다
 - 투표, 의결, 경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함
 - 서울 이외의 지역을 이르는 말
 - 기원전 5세기경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시한 후 동양 여러 나라에 전파된 종교
 - 광물을 캐내는 곳
 -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장독 등을 놓아두려고 들 안에 좀 높직하게 만들어 놓은 곳
 - 학생들의 성적이나 기능, 태도 등을 기록한 표
 - 아버지를 정중히 이르는 말

▶ **8월호 정답**

광	복	절		동	소	나	기
화			배	상	금		
문	방	사	우		연	전	연
	명		자	선			년
상	록	수		물	화	생	방
록			양	논			귀
			아	부	개	선	
천			모	판	봉		동
재	갈		사	장	학	생	

공존

이은비 태국 | 2015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우수상

2015년 3월. 치앙마이 전 지역에 살고 있는 뱀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안건은 '화전으로 인한 공기오염과 그 대비책'이다. 태국의 북부 도시 치앙마이는 해발 400미터의 분지이다. 이곳에는 치앙마이 인구의 상당수에 달하는 화전민들이 산 속에서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

치앙마이의 날씨는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매우 높은, 즉 사회시간에 배운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로 알려져 있다. 산속에 있는 땅들은 많은 비와 높은 온도의 영향으로 땅속의 영양분은 거의 씻겨 내려가고, 유기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붉은색 철 성분만 많이 남아있는 적색토가 대부분이어서, 그러한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산 속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하는 수 없이 매년 2월과 3월이 되면, 나무, 풀, 숲 등을 태워서, 그 때 생긴 유기물을 이용하여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다시 일군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부터 농민들의 화전이 시작되었고, 분지여서 사방이 막힌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뱀들은 화염과 연기, 그리고 바람과 함께 실려 오는 검은 먼지들로 눈도 따갑고, 목도 매일 붓는다.

앞에서 막 깨어난 자신들의 어린 새끼들이 잘게 부숴준 지렁이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곱툰대다가 기절을 하는 일이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치앙마이 나이트 사파리 근처 뱀 병원 응급실에는 연기에 질식된 뱀, 피부가 화염에 그슬린 뱀, 알 수 없는 두통과 복통, 구토에 시달리는 뱀 환자들이 하루에 수십 마리씩 복새통을 이룬다.

인간의 정령에 좋아서 가장 비싸게 팔려 가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던 흰색 뱀은, 연기로 검게 그을려서 이젠 싸구려 지갑조차도 만들 수 없게 된 자신의 피부를 보면서 한숨을 지었다.

맹독을 무기로 위엄을 과시하던 검푸른 독사는, 입안에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품만 줄줄 흐른다고 하소연을 했다

배로 기어 다니는 다른 뱀들과는 달리 언제나 당당히 몸의 절반가량을 곳곳이 세우며 인간들을 눈빛으로 제압하던 코브라는, 어느 몰지각한 공장의 폐기물이 타면서 내뿜은 유독가스로 인해 척추가 마비되어 더 이상 몸을 세우지 못해, 다른 뱀들처럼 배로 기는 신세가 되어서 척추치료와 우울증 치료를 함께 병행한다고 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가늘고 긴 초록색 뱀은, 검은 먼지로 인해 나뭇가지와 전깃줄의 색깔이 비슷해진 것을 모르고, 새를 잡아먹기 위해 나뭇가지로 착각한 전깃줄에 몸을 감다가 그만 감전이 되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그나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한다.

자전거 바퀴처럼 보이는 검은색 뱀은 어느 날 앞에서 달려오는 인간의 자동차 바퀴를 미처 피하지 못해 꼬리 부분이 잘려 나갔다고 한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생을 장애 뱀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울먹거렸다.

뱀 중에서 제일 게으른 누런 색 뱀은 긴 구멍이 집인데, 아직 동면에서 깨기도 전에 덮친 화염과 연기로 집의 출입구가 막혀 질식사할 뻔 했다고 한다.

뱀 병원 1층 응급실 복도 끝에서 간호를 위해 함께 온 가



족 뱀들이 대책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척추를 다친 코브라의 할아버지로 정해졌다. 젊은 뱀들은 가장 오래 사신 코브라 할아버지를 어르신으로 모시고, 그분의 느리지만 또박 또박한 말씀에 모두가 눈을 반짝이며 귀를 세웠다. 코브라 어르신의 목소리는 차분하며 점잖았고, 오랜 경험으로 연륜이 묻어 나와 다른 젊은 뱀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코브라 어르신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나는 수십 년을 화전을 하는 인간들을 보아왔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그 때까지만 해도 나는 매년 행해지는 인간들의 화전을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며 큰 문제없이 잘 살아왔지, 아니 오히려 인간들이 풀과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들이 땅 속 깊이 들어가면 땅이 기름지고, 영양분이 많아져서 우리 같은 뱀들은 먹을 것이 더 많아져서 덕을 보기도 했지. 사실 나는 마른 나뭇잎 타는 냄새를 은근히 즐기기까지 했었어. 구수하고,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도 했지. 허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무 타는 냄새, 풀 타는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갑자기 치앙마이가 변하기 시작했어. 거리는 자동차 공무니에서 나오는 가스로 오염되기 시작했고, 산 속에 몰래 버려지는 각종 공장 폐기물들은 화전민들이 태우는 연기 속에서 몰래 태워지다가, 결국은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내 농민들의 가슴을 더 까맣게 태우고 말더라고. 그뿐 아닐세. 치앙마이에 사는 태국인들의 폐암환자가 최근 갑자기 증가했다는 말도 있어! 사실 우리가 인간들 걱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편해야 우리 같은 뱀들도 신경 쓰는 일들이 줄어들지...”

어르신 뱀의 말씀이 끝나갈 무렵 개구리를 주식으로 하는 검은 뱀이 그 다음 말을 이어갔다. “땅 속도 땅 위도 공중조차도 안전한 곳은 없네요. 어르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때 나뭇가지를 날렵하게 오가며 새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초록 뱀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뱀들도 도이인타는 같은 공기 좋은 곳으로 모두 이사를 가면 안

될까요? 태국의 왕비를 모신 아주 커다란 사찰이 있는 곳 뒤에 엄청 큰 산이 있어요. 그곳은 화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은 이러한 사고도 없고, 또 먹을 것도 많을 거예요.”

“모르는 소리” 어르신 뱀은 곳곳이 세웠던 몸통을 다른 뱀들처럼 내리고, 초록 뱀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도이인타논에 가면 우리 뱀들은 모두 인간들에게 잡혀서 뱀술이 되거나, 흰 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로 팔려 가거나 할 걸세.”

모든 뱀들은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세타령은 그만 하고, 우리 상황에 맞는 회의를 해요.” 가장 어린 푸른 색 뱀이 짜증 어린 목소리로 말을 하자 코브라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그 날 회의를 마쳤다.

“우리 뱀들에게겐 정해진 자리가 있지. 그 자리를 이탈하면 위험한 일도 함께 생기는 법. 벌레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초록 뱀은 나무 위 새 집까지 몰래 들어가서 어린 새를 낚음 잡아먹는 행동을 지금부터 금하고, 개구리만을 편식하던 검은 뱀은 지렁이나 죽은 도마뱀 등으로 식탐을 줄이고, 게으른 누런 뱀은 이 기회에 아예 다이어트를 좀 해서 살도 빼고, 푸른 뱀은 파리나 모기, 메뚜기 같은 것으로 식단을 다시 짜고, 피부관리에 엄청 예민한 흰 뱀은 아예 채식으로 한번 바꾸면 좋겠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들은 양심 없는 인간들이 쓰레기를 산 속에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네.”

치앙마이 뱀들은 인간들을 원망만 하지 않았다. 자꾸 변해가는 세상, 욕심으로 화를 부른 세상 속에서도 자신들에게서 먼저 문제를 찾았고, 해결책을 내놓고 실천해 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치앙마이 뱀들의 회의는 일단 끝이 났다. **장**



OKF NEWS

“글로벌 코리안 키우자” 동포 대학생 212명 방한



8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세계 26개국에서 온 212명의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아리랑 퍼포먼스' 플래시몹을 벌이고 있다

26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대학생 212명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글로벌 코리안'이 되는 역량을 키웠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2016 재외동포 대학생 초청 연수' 행사를 가졌다.

7월 27일 방한한 이들은 다음날인 28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구, 목포, 부산, 수원, 원주 등을 돌며 농촌 문화 체험, 유적지 탐방, 한류 명소 발굴 등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개막식 후 그룹별로 미션에 따라 광주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과제를 수행하는 '시티 하이킹'을 진행했고, '광주세계청년축제'에도 참가해 또래 청년들과의 문화교류에도 참여했다.

8월 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야외 행사인 '아리랑 퍼포먼스'도 펼쳤다.

8월 2일에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로부터 한국 바로알리기 교육 및 홍보 비법을

배웠고, 참가자들은 거주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홍보 미션을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 청년들이 그동안 책이나 말로만 접했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번 연수를 통해 직접 살펴보았다”며 “대한민국을 자신의 모국으로 여기고 한민족으로서 자긍심도 키워 장차 세계 무대를 누비는 '글로벌 코리안'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에 성백군 씨 '어머니의 마당'

'제18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 부문 대상에 재미동포 성백군 씨의 '어머니의 마당'이 차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각국 동포와 함께 한글에 담긴 민족의 얼을 되새기고자 '제18회 재외동포 문학상'을 열어 수상작으로 30편을 선정했다.

재단은 29개국 재외동포가 낸 835편의 후보작을 심사해 시 부문 대상에 성백군 씨의 '어머니의 마당'을 비롯해 수필 부문 대상 재미동포 최정우 씨의 '생일, 마늘밭에서', 단편소설 부문 대상 인도네시아 동포 배동선 씨의 '지독한 인간'을 각각 선정했다.

이밖에 초등 및 중·고등 글짓기 부문, 한글학교 부문에서도 각각 우수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오랫동안 모국을 떠나있던 동포들이 한국어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사용했다는 점이 반가웠다”고 평했다고 동포재단은 전했다.

아르헨티나서 제2차 중남미 한상대회 성료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스킨라 호텔에서 열린 제2차 중남미 한상대회에는 9개국에서 45명의 한상이 참가했다.

중남미한상연합회(회장 이재훈)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스킨라 호텔에서 제2차 중남미 한상대회를 개최했다.

아르헨티나 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이용섭)가 주관하고, 재외동포재단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중남미 9개국 45명의 한상이 참가했다.

대회 기간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창업을 준비하는 한인이나 이곳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시정부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현지 기업 시찰, 기업의 성공 사례 발표, 업종 다변화와 기업인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주최 측은 대회 기간에 여러 기업의 정보, 한상대회 참여 정보, 상공인연합회 가

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시관을 별도로 운영해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참가 한상들은 한인 의학박사 마르셀로 최 씨의 논문이 미국 과학잡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후원금도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훈 회장은 “한상대회,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주로 북미나 일본 위주로 개최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이민 역사가 긴 중남미도 더 많이 동참하고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매년 가을 고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대륙별 한상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단은 지역 행사를 통해 1.5~2세대의 한상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민족 전통문화 배우자” 고려인 예술가들 고국 연수



국립남도국악원에서 8월 1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와 CIS지역에서 온 고려인 예술가들이 전통예술 집중 교육을 받았다.

해외 고려인 예술가들이 고국을 찾아와 전통문화를 배우며 한민족으로서 뿌리를 되새겼다.

재외동포재단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4개국에서 20여 명의 고려인 예술가를 선발·초청해 8월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연수를 진행했다.

이들 예술가는 일제 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한인의 후손으로, 연수를 통해 배운 모국의 전통 예술을 거주국 고려인 사회에 전파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고려인 예술가들은 전남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서 2주 과정으로 한국 무용, 사물놀이 등을 배우고, 서울에서 역사·문화 탐방도 펼쳤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고려인 사회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도록 지원하고자 예술인 연수 과정을 마련했다”면서 “이들 예술가가 거주국으로 돌아가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뿌리를 계승·전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CIS 지역 한인·고려인 차세대 연대강화 방안 논의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회장 이혁연, 이하 총연)와 조지아한인회(회장 이광복)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 레이톤 호텔 컨퍼런스홀에서 ‘러시아·CIS 지역 한인과 고려인 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강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지아 트빌리시 레이톤 호텔에서 8월 5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CIS 지역 한인과 고려인 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강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의 주요 도시와 CIS 7개국 등의 11개 한인회 관계자 41명이 모여 차세대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인사로는 김창규 주아제르바이잔&조지아 한국대사, 양태규 전 주코트디부아르 한국대사, 이혁연 총연회장, 이경종 전 총연회장, 최발레리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연은 10개 지역에서 한인과 고려인 차세대가 함께하는 ‘청년연합회’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개회식에 이어 6일 심포지엄에는 청년연합회 발족을 통해 제기된 의제 보고와 후속 지원 및 발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혁연 회장은 “최근 한인회와 고려인협회는 단합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교류에 힘쓰고 있다”며 “차세대 간에도 꾸준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연합회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연은 행사 기간 조지아고려인회 결성식을 열어 고려인 3세인 반철수 씨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불우한 고려인에게 선물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창**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한 강릉 초당두부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오묘한 맛에 푹 빠져들어



1



2



3

초 당두부는 먹어본 이도 있겠지만 어디선가 이름만 들어 막연하다 싶은 이도 있을 것이다. 강원도 강릉을 대표하는 음식이 곧 초당두부다. 그 정체와 유래부터 살펴보자. 초당(草堂)은 말 그대로 '초가집'을 뜻한다. 서민이면 누구나 즐겨 먹고, 웬지 모르게 어머니의 품 같은 따스함이 배어 있을 듯 친숙한 이름이다. 강릉 경포호 남쪽에 있는 마을 초당동. 청정한 솔숲이 우거진 동네다. 동해가 치적이어서 가만히 귀 기울이면 파도 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려올 듯하다. 바로 여기에 초당두부 마을이 있다. 두붓집 20여 개가 오순도순 사이좋게 들어앉아 있는 곳. 속 깊은 두부 맛에 끌려 특히 주말이면 찾는 이들로 붐빈다.

'초당'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성리학자였던 허엽(許曄·1517~1580)의 호다. 초당 허엽은 여류시인 허난설헌과 '홍길동전' 작가 허균의 아버지. 그가 강릉 부사로 재임할 때 탄생한 게 바로 초당두부였다. 두부 명칭과 마을 이름이 '초당'인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초당 허엽이 오기 전에도 이 지역 서민들은 두부를 만들어 먹었다. 하지만 소금기가 없어 맛이 썩 싱거웠다. 강릉 동해의 수심이 깊고 바람도 심해 천일염 생산이 어려운 터라 서민들은 소금기를 넣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초당은 바닷물이라는 천연의 간수로 두부를 만들게 했는데 특유의 맛이 소문나며 강릉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땅과 바다, 그리고 인간이 함께 빚어낸 '명품' 먹거리랄까. 초당두부는 강원도에서 나는 콩을 원재료로 한다. 이른바 '백태'. 밭에서 나는 쇠고기인 이 콩은 두부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율이 한결 높아진다. 단백질은 물론 칼슘, 마그네슘을 공급하기도 최적의 식품이다.

초당두부는 크게 순두부와 모두부로 나뉜다. 순두부란 콩을 갈고 끓여 만든 것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진 않다. 일명 '초(初)두부'. 워낙 부드러워 씹지 않아도 곧잘 목으로 넘어간다. 초두부를 네모난 틀에 넣은 다음 무거운 돌을 얹어 물기를 빼낸 게 바로 모두부다. 초당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자. 먼저 콩 불리기. 좋은 콩을 선별해 깨끗한 물에 넣고 장시간 불리는데 수온에 따라 시간 차이가 많이

1. 초당두부 2. 초당두부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3. 초당두부와 그 상차림, 깍두기, 깻잎장아찌 등의 반찬이 곁들여진다.

▶ 경포대 · 경포호



관동팔경의 하나로, 달맞이 장소로도 유명하며 조선 초기에는 태조와 세조의 순력이 있었다 하여 매우 널리 알려진 정자로 관동팔경 중에서 가장 수려한 조망을 지니고 있다. 경포대는 앞면 5칸, 옆면 5칸,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 집으로, 모두 48개의 기둥으로 이뤄졌다. '경포대'라는 현판은 두 개가 있는데, 전서체 현판은 유한지가, 해서체 현판은 이익회의 글씨이다. 저녁 무렵 누각에 앉으면 하늘에 뜬 달, 바다에 뜬 달, 호수에 뜬 달, 그리고 술잔에 뜬 달과 임의 농동자에 비친 달 등 무려 다섯 개의 달을 볼 수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 강릉시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오죽헌 · 시립박물관 → 동양지수박물관 → 선교장 → 경포대 · 경포호 → 경포생태습지원 → 참소리 축음기 · 에디슨과학박물관 → 경포 해변

• 관광 안내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033-640-4414)
 터미널관광안내소 (033-640-4537)

• 대중교통

고속버스(서울-강릉 2시간 40분 소요)
 기차(서울 청량리-정동진 5시간 37분 소요)

• 식당 정보

초당할머니순두부 (033-652-2058)
 동화가든짬뽕순두부 (033-652-9885)



초당두부 만들기. 콩을 불려 맷돌에 갈고, 콩물을 걸러낸 뒤 가마솥에 넣고 바닷물과 함께 끓이면 콩물이 서서히 응고된다. 초두부를 네모로 자르면 모두부가 된다. 3대째 두부를 만드는 김영환 씨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난다. 여름엔 7시간가량을 담그고 추운 겨울에는 12시간 이상 불려야 한다. 이어 콩 갈기. 전통 방식으로는 맷돌에 갈았으나 요즘엔 대개 기계식 맷돌을 이용한다. 다음은 삼베 형겔 자루에 콩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콩물을 거르는 과정.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 형겔 아래로 흘러내린 콩물은 가마솥에 넣고 40분가량 끓인다. 이때 바닷물을 서서히 넣는데 이를 어떻게,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어 가마솥을 불로 가열하면 콩물이 서서히 응고된다. 소요시간은 약 40분. 완성된 초두부를 네모난 나무틀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무거운 돌을 얹어 물기를 서서히 빼내며 완성하는 게 모두부다. 이 또한 30~40분이 걸리는데 이때 굳기를 잘 조절해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극대화된다. 만드는 과정 자체에 인내와 정성이 요구된다. 두부는 곧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고 소화 역시 잘돼 노인이나 어린이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초당두부. 이 음식은 김치나 당근, 미역과 궁합이 잘 맞는다. 배추김치, 느타리버섯, 들깨가루 양념장과 함께 끓인 두부전골은 언제 먹어도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일품이다. 깍두기, 묵은지, 나물 무침, 고추장아찌, 깻잎장아찌 등은 두부의 묘미를 더해주는 절친한 동반자들이다. 초당두부도 시대 흐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두부마을에는 순두부짬뽕, 얼큰순두부, 해물순두부 등 매콤한 퓨전 음식이 속속 출현해 젊은 층의 입맛을 돋운다. **장**



곳곳에 소나무숲이 우거진 강릉시 초당동의 초당두부 마을(좌)과 마을 입구의 표지판.

“‘한상&청년, Go Together!’ 참가 신청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은 ‘제15차 세계한상대회’의 3일차인 9월 29일에 진행되는 ‘한상&청년, Go Together!’에 참가할 청년을 모집한다.

재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30초 스피치와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자신을 어필하게 되며, 행사에 참여한 전 세계 한상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게 된다.



재단은 맨손으로 도전해 주류 사회에 우뚝 선 한상의 성공 노하우 전수와 해외 취업 관련 외부 강사의 특강도 마련했다.

세계한상대회는 각국의 한민족 경제인이 고국에 모여 경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교류하는 행사다.

재단은 올해 대회를 오는 9월 27~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전시부스를 설치해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한다.

참가 문의는 세계한상대회 사무국(☎02-3415-0152)으로 하면 된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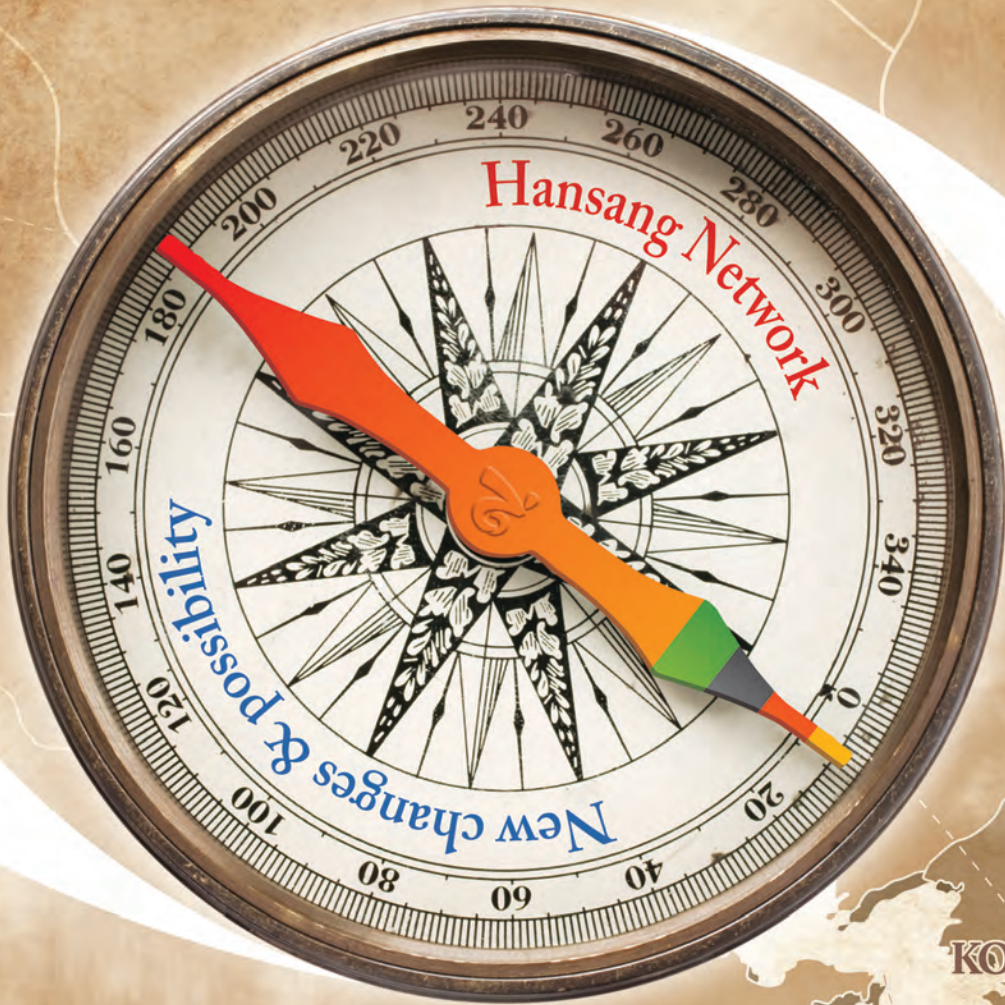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새로운 변화와 도약, **한상 네트워크**
 New changes & Possibility, **Hansang Network**



THE 15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제15차**

세계한상대회

2016. 9. **27**화 ~ **29**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